

민주 "순천·광주 서구 또는 광산구 양보" 민노 "3곳 더 달라"

주민에게 물어봤나... 호남 야권연대 시끌

지역 위원장들 강력 반발... 내일 협상 시한

6·2 지방선거 야권 연대 협상의 최종 시한(15일)을 이틀 남겨두고 막바지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어느 곳이 민주당의 양보지역에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지역 주민과 당원을 무시하는 이런 연대가 어디 있느냐"며 "지지를 높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기본원리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며, 지역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호남 지역에서의 연대 성사 전망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을 잘하면 되지, 왜 호남까지 내놓아야 하는냐는 목소리가 크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과 호남에서만은 예외적으로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을 배제하는 연대를 해야 한다는 국민참여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4당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서울 문래동 민노당 당사에서 12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회의를 갖고, 그동안 압축한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당 협상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방식 및 수도권 기초단체장과 전국 광역·기초의원 지역 배분, 호남지역에서 연대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남지역 연대 부분에서는 각 당의 입장차뿐 아니라 민주당 내 반발이 있어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13일 "민주당은 비공식적으로 전남에서는 순천, 광주에서는 서구 또는 광산구 중 한 곳 등 모두 두 곳을 양보한다는 안을 갖고 있는 반면, 다른 야당에서는 이 외에도 광주 북구, 구례, 전북 김제·완주 등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본부장과 야권 연대 협상에서 민주당 측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호남 지역에서의 연대 성사 전망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을 잘하면 되지, 왜 호남까지 내놓아야 하는냐는 목소리가 크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후 민노당과 참여당은 연대 예외 지역에 대해 양당 간 협상안을 마련하고, 대신 민주당은 지도부 지역구부터 다른 야당에 양보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 협상단은 여론조사와 오픈프라이머리 결과를 5대 5로 반영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 전남지사 경선 여론조사 왜 당원 아닌 도민대상?

"당원수가 1700명 밖에 안되거든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전남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면서 당원을 배제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대식·김보민·정 훈 예비후보 3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18일 양일간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결과로 전남도지사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과거 '인물난'을 겪던 것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 3명의 후보가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자 한나라당은 불모지인 전남에서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으로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3명이나 나올 때 이를 최대한 전남도민들에게 '어필'해 이번 기회에 불모지인 전남에서 한나라당의 인지도를 크게 높여보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 기초장 후보 속속 윤곽

나주시장 후보 임성훈씨

구례군수 후보 서기동씨

곡성군수 후보 조형래씨

■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 및 후보

◇ 광주

Table with 3 columns: 기초단체장, 경선일자, 후보자. Rows include 서구, 광산구, 북구, 남구.

◇ 전남

Table with 3 columns: 기초단체장, 경선일자, 후보자. Rows include 구례군,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진도군, 광양시, 해남군, 완도군, 목포시, 고흥군, 보성군, 신안군, 순천시.

* 경선방법: 전당원여론조사 50% + 국민여론조사 50%

※순천: 선거인단투표 (국민 50% + 당원 50%)

※단수후보확정=정홍(이명환)·영광(정기호)·장성(김양수)

※강진군=강진원 후보 확정

론조사결과 50%를 통해 선출됐다.

앞서 강진군수 후보로는 강진원 예비후보가 선정됐다.

또한, 이날부터 담양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서·광산 17일, 북구 18일, 남구 24일 경선

영암·화순군수 14일, 광양시장 19일 결정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은 오는 17일 각각 서구 빛고을 체육관과 광산구 호남대 체육관에서 국민참여경선(국민 여론조사 50% + 당원 직접투표 50%)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시민공천 배심원제로 치러지는 남구청장은 경선은 오는 24일 치러진다.

이들은 전 당원여론조사 50%와 국민 또는 시민 여론조사결과 50%를 통해 선출됐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국부동산컨설팅' (Korea Real Estate Consulting)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in Gwangju.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전통성인 커뮤니티' (Traditional Adult Community) in Gwangju, featuring a phone number 1588-3533.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토지매매' (Land Sale) in Naju, listing a large plot of land for 40.5 billion won.

Advertisement for '선거차량' (Election Vehicle) services, including a truck with a campaign sig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WAD.